



멋진 濟州풍광에 새名所될 애월항

觀光地라서 애먹기도 漁場피해없도록 最善

梁 富 澤 <世紀建設(株)土木工務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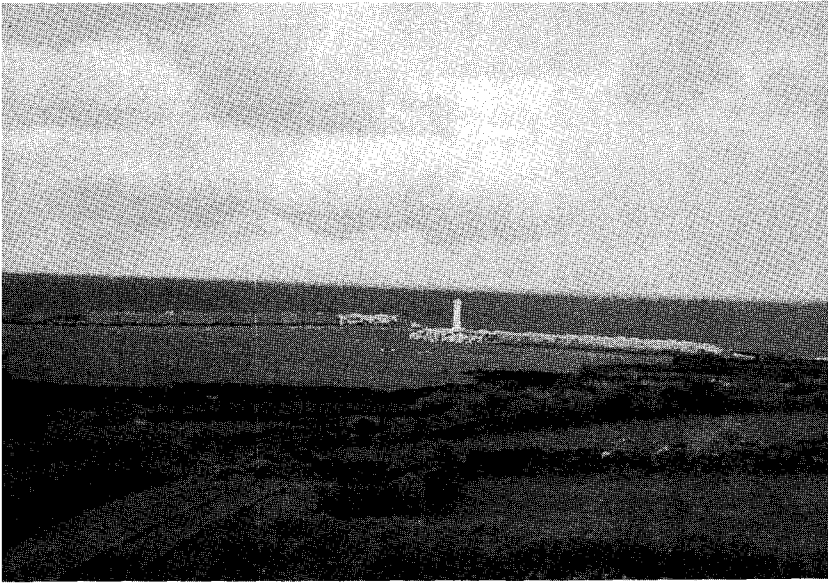
애 월항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수산청 제1종 어항이다.

1971년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개발이 미뤄져 오다 무려 10년뒤인 1981년 수리모형실험이 실시됐고, 다시 5년뒤인 1985년에야 비로소 기본계획이 완성돼 1987년에 1차 공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애월항은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 1966년 무렵에도 개발에 착수하긴 했으나 그 규모나 실적은 지극히 미미했으며, 지난해말 제4차 공사가 끝난 지금에서야 어항다운 골격과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連陸交通의 要地

애월항이 속한 북제주군은 제주도의 북부 일원을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를 가운데



“

애월항은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 1966년 무렵에도
 개발에 착수하긴 했으나
 그 규모나 실적은
 지극히 미미했으며,
 지난해말 제4차 공사가
 끝난 지금에서야
 어항다운 골격과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에 두고 동·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탓으로 남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 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옛부터 연육교통의 요지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 이유는 이곳의 지형학적 위치가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국토의 최남단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3국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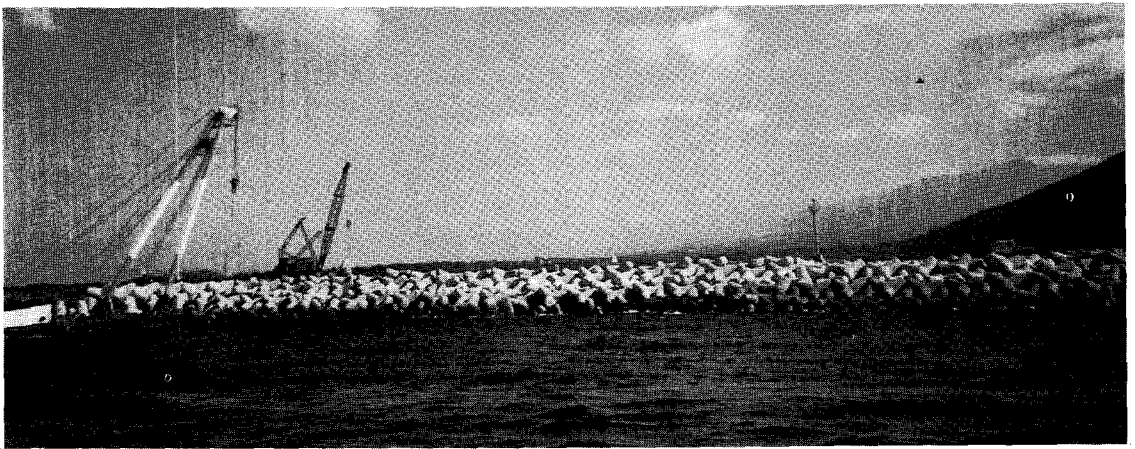
결하는 가운데에 있어 수산업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상업상 교류의 중심지로서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인지는 몰라도 애월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는 비교적 좋은 항이 많은 편이다.

14km 떨어진 곳에 수산청 제1종 어항인 도두항이 있고, 해운항만청 제2종항인 한림항이

9km 거리에 있으며, 역시 해운항만청 제1종항인 제주항이 21km의 거리에 있어 이곳 주변의 분주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애월항의 개발은 그야말로 필연적인 것이며, 특히 제주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필요에 의한 공사타인지는 몰라도 애월항의 공사는 매우 순조로우면서도 신속히 진행된 편이다.

애월항의 공사규모는 북방과제 650m, 동방과제 90m, 남방과제 60m, 물양장 270m, 호안 105m, 준설 8,600㎡로 공사비는 약 84억원이다.

그런데 지난해말 현재 공사잔량은 물양장 80m와 호안 75m, 그리고 준설 3,800㎡ 정도이니 대부분의 어려운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해도 옳은 것 같다.

■어민便宜施設 확보

공사에 임한 우리 세기건설주식회사는 모든 공사의 기준을 어민의 편의시설 확보에 두었다. 왜냐하면 애월항을 중심으로 주변에 관광지과 해수욕장이 많아 자칫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민의 어업외 소득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걱정했던 것만큼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오는 바람에 공사 관계자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공사 관계자들에게 다음 몇가지 사항을 철저히 당부하고 주지시키며 공사에 임했다.

우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장비의 관리를 잘못해서 인근 어선들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

“

**무엇보다도
제주도 지역은
관광도시인지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관리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눈앞에 다가온 애월항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회를 금할 길이 없다.
애월항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항내규모는
항내수면적
10만 4,000㎡,
정온수면적 9만 2,000㎡로
10톤급 어선 215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어항으로
탈바꿈한다.**

”

록 철저를 기하게 했다.

다음은 작업장에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무엇보다도 애월항을 중심으로 한 이곳은 문어, 방어, 도미같은 고급어종이 연중 어획되는 곳으로써 연간 어획량만도 950여톤에 12억 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오염물질 등으로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비교적 신경을 많이 쓴 공사는 준설로 인한 어장환경 보전이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결과 모든 공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애월항을 튼튼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상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颱風·장마피해 비껴

공사기간중 적어도 대여섯차례의 태풍과 장마가 있었지만 요행히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애월항을 이상하리만치 비껴갔다고나 할까.

인간사가 모두 그러한 것이겠지만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평범하면서도 경험에서 얻은 값진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떨 땐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실패를 한 쓰라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데 절대로 속이거나, 눈가림을 하지 않음을 철칙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하늘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80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자재·裝備動員 힘들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애를 먹인 것은 역시 원활한 자재의 공급과 장비의 동원이었다. 어느 공사나 이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이겠으나 특히 어항공사에서는 양질의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장비선과 석산개발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화산석이 대부분이라서 이를 개발하는 일이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이 관광지인 탓으로 함부로 석산개발을 한다고 여기저기를 파헤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석산문제가 해결됐을 때 공사가 반 이상은 끝났구나 안도를 할 정도였다. 그만큼 제주도에서의 어항공사는 다른 지역보다 특이했다.

굳이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을 들자면 어항공사에 걸맞은 충분한 인력의 보강문제였다. 제주도가 도서인 관계로 이것 역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지역은 관광도시인지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고, 그러다 보

니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관리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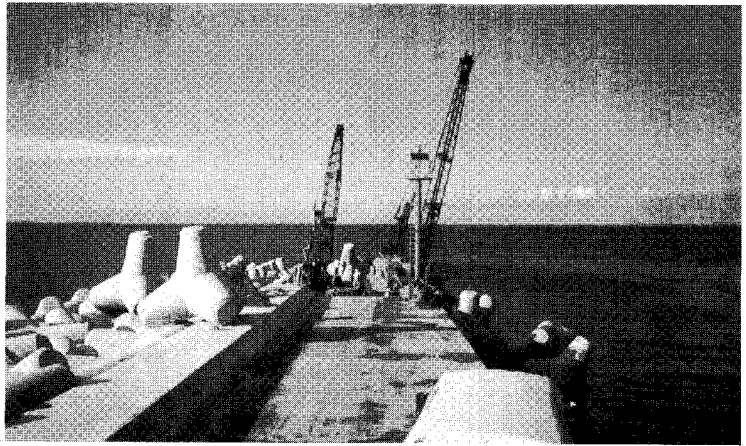
어쨌든 이러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눈앞에 다가온 애월항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회를 금할 길이 없다.

애월항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항내규모는 항내수면적 10만 4,000㎡, 정운수면적 9만 2,000㎡로 10톤급 어선 215척

漁民의 오랜 꿈 實現

어촌치고는 드물게 인구가 1만 1,200명을 포용하고 있는 애월항. 그동안 완전하지 못한 항내 시설로 인하여 어선을 갖고 싶어도 내키지 않았던 어민.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협동조합운동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어항으로 탈바꿈한다.

지금 현재의 지선 어선수가 90여척에 불과하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외래어선을 유치한다 해도 얼마든지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애월항 주민들의 직·간접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부대시설인데 이제 기본시설은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니 이것 역시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고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루어지고 있어 어항관리 문제로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된 것으로 확신한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제 서서히 완공돼 가는 애월항을 바라보는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은 않다.

아마도 제주도의 좋은 풍물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소로 애월항이 등장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저 최선을 다한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부르짖으며 노력해온 그간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날이 점차 가까워지자 웬지 가슴부터 뛰는 것 같다.▲